

1. 역사

■ 개교

義와 藝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온 호남의 중심 光州에 국립 전남대학교가 출범의 뜻을 올린 것은 1952년 6월 9일의 일이다.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를 재건하고, 호남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해달라는 지역민들의 염원 속에서 전남대학교는 문을 열었다. 전남대학교의 역사는 195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모태가 된 전사(前史)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00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전남대학교가 개교하기 이전에 호남에는 광주농과대학(1909년 개교한 광주농업학교가 전신), 독립 목포상과대학(1920년 개교한 목포상업학교가 전신), 독립 광주의과대학(1944년 개교한 광주의학전문학교가 전신), 사립 대성대학(1951년 대성의숙으로 설립인가) 등 여러 대학이 있었다. 그러나 건국 이후 유능한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지역민들은 보다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국립대학의 설립을 강력히 희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호남인의 열망은 1951년 9월 16일 전남대학교 건립 기성회를 발족시킴으로써 첫 결실을 맺는다.

기성회에서는 성금 모금을 비롯한 본격적인 학교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고, 1951년 10월 6일 전남대학교 설립인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1952년 1월 1일, 광주농과대학을 농과대학으로, 독립 목포상과대학을 상과대학으로, 사립 대성대학을 문리과대학으로, 그리고 독립 광주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개편 이관하고 공과대학을 신설해 5개 단과대학 규모의 국립 전남대학교가 발족하게 된다. 1952년 6월 1일 최상채 초대 총장과 8명의 학·처장, 그리고 사무국장이 임명됨에 따라 종합대학으로서의 체계와 기능을 갖추었으며, 마침내 1952년 6월 9일 시민과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개교 당시 전남대학교는 본부(교학처, 사무국)와 단과대학(공과대학, 농과대학, 문리과대학, 상과대학, 의과대학), 그리고 1950년 5월 독립 광주의과대학에 이미 인가되었던 대학원 등의 기구를 갖추었다.

■ 대학의 발전기

개교 이후 전남대학교는 학칙 제정에 이어 법과대학을 신설하고, 도서관 등 부속기관을 설립하였으며 대학신문을 창간하는 등 발전의 기틀을 빠르게 다져나갔다. 그러던 중 4.19 학생의거로부터 시작된 1960년대의 정치적 소용돌이를 겪게 된다. 5.16 군사정변, 국립대학교 정비령,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시련 속에서 한때 농과대학과 상과대학이 폐교되고 공과대학 화학공학과가 폐과되었다가 1961년부터 1965년 사이에 부활되는 변화를 겪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남대학교는 의과대학의 수련의 제도를 확립(1960년)하고, 어학연구소, 학생지도연구소, 호남문화연구소 등 많은 연구소를 설치(1963년)하면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정립시켜 나갔다. 1965년 7월 6일에는 교수협의회가 발족하여 연구교수제의 확충, 지방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1969년에는 경영대학원(현

경영전문대학원)이 신설되었다.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남대학교는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고난을 겪게 된다. 대학의 조직은 1969년에 1처 1국 2원 6개 대학 28개 학과이던 것이 1974년에는 2처 1국 4원 8개 대학 63개 학과로 늘어났다. 이 시기에 대학의 교육개혁을 목표로 신입생의 계열별 모집과 이수학점의 하향 조정, 조기졸업의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실험대학제도가 도입(1972년)되었다. 또한 연구실과 강의실이 활발하게 신축되었으며 용봉캠퍼스에 산재해 있던 민가가 철거되고, 용지가 조성(1969년)되는 등 교육환경도 대대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1980년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하고, 이후 군사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기를 지나오면서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문리과대학이 인문사회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1979년)된 데에 이어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 추가 개편(1987년)되었으며, 치과대학(1980년), 약학대학(1981년), 예술대학(1981년)이 신설되었다. 농과대학으로부터 수의과대학(1988년)이, 자연과학대학으로부터 가정대학(현 생활과학대학, 1989년)이, 의과대학으로부터 간호대학이(2005년) 분리되어 학문의 독립성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교육대학원(1975년), 행정대학원(현 정책대학원, 1979년), 산업대학원(1989년)이 신설되었다.

21세기를 맞은 전남대학교는 고등교육 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식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서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 3월 1일에는 문화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90년의 역사를 지닌 여수대학교와 통합하였으며, 이후로는 법학전문대학원(2009년), AI융합대학(2019년),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과 식물방역대학원(2022년)을 차례로 신설하였다.

2023년 현재 전남대학교의 행정조직은 5처, 1국, 6본부, 17개 단과대학, 일반대학원 및 6개 특수대학원, 5개 전문대학원, 1개 교육기본시설, 12개 부속시설, 13개 총장직속기구, 2개 법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2023년에는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대학운동을 위해 정보전산원을 정보화 본부로 승격시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협력본부와 대외협력본부도 글로벌 대외협력처로 통합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과 대외 업무의 선제적인 대응 전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

전남대학교는 '진리와 정의를 밝히는 빛이 되는 전남대'를 비전으로 삼아,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세계를 열어가는 글로벌 인재육성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을 인재상으로 추구한다. 2022년 수립한 대학발전계획에서 5대 영역 40대 실행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연번	영역	슬로건	실행전략
1	교육	당당하고 자유로운 창의·감성·상생·인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중심 교양교육 강화 - 미래선도형 전공 교육 혁신 - 교육혁신 플랫폼 구축 - 학생중심 교육 지원 강화 - 역량중심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강화

연번	영역	슬로건	실행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중심 취·창업 교육 고도화 -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교수·학습 능력 개발 고도화
2	연구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지속가능 연구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밀착형 교육제도 혁신 - 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 - 생애전주기 연구지원체계 실행 -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 연구 국제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 연구혁신 제도 추진 - 연구자 맞춤형 밀착행정 지원 - 연구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고도화
3	특성화 산학연협력	혁신적 인재양성과 산학연협력으로 고등교육의 변화와 융합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 -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 국가경쟁력 강화 특화 인재양성 - 지역상생발전 산학연협력 강화 - 미래형 산학연협력 플랫폼 구축 -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 전남대형 학생 성공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에코캠퍼스 운영
4	지역협력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미래형 교육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 지역민 평생학습 지원 강화 -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협력 공동체 구축 - 지역현안 해결 공동체 구축 - 대학 간 협력 체제 강화 - 지역민 수요맞춤형 대학 자원 공유 - 지역사회 공헌 확대
5	대학운영	소통, 혁신, 적극행정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운영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기반 행정 및 조직문화 형성 - 학문 분야별 자율 혁신 지원 - 교직원 복지 프로그램 강화 - 데이터 분석 기반 행정체계 구축 - 지역기반 캠퍼스 균형 발전 - 학사구조 개편 적정규모화 - CNU 캠퍼스 마스터플랜 추진 - 대학 재정운용 혁신 및 브랜드가치 향상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형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이공학적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고, 우수 연구자를 소중히 배려하여 세계적인 우수연구 집단이 살아 숨쉬는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민이 사랑하는 명품 대학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담론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평생교육 확산에 주력하며 생동하는 학생 문화를 모색하고 교직원의 직종 간 상생문화를 조성하여 대학 가족의 행복한 동행을 추구한다.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혁신의 기조와 방향을 상시 유지하여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거점대학, 세계에 당당한 명문대학으로서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2023년 개교 71주년을 맞이한 전남대학교는 전 세계 65개국 602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하는 글로벌 대학으로서, 매년 1,60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수학하여 글로벌 캠퍼스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사업, 반도체공동연구소사업,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도맡아 수행하며 지역사회 활성화는 물론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지털 신기술, 지식재산 등 미래시대에 필요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